

국가직 지역인재 9급 합격률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필기합격자 15명 면접 특강... 4~5일·21일 3일에 걸쳐

공무원 면접 바로알기·개인 발표 과제 실습·실전 모의면접 등으로 구성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4~5일과 21일 3일에 걸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15명을 대상으로 면접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필기시험 합격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실전 면접시험 대응력을 높여 최종 합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면접특강은 △공무원 면접 바로알기 △개인 발표 과제 실습 △실전 모의면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면접을 실시,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신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최

종 면접에 한층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인재들이 국가직 공직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날 30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찾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서거석 교육감,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앞두고 전북 사대부고 찾아 고3 수험생·교직원 격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날 30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찾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를 방문한 서 교육감은 “어렵고 힘든 수험생활을 견뎌온 여러분을

응원한다”면서 “여러분이 흘린 값진 땀의 노력이 여러분을 빛나는 내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실력을 맘껏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해 노력해 온 교직원들도 격

려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수능 일주일 전까지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 응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오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내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총 1만7,041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장은성 기자

K-방위산업 인재 양성 ‘맞손’

전북대, 방사청과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방위산업 융합전공을 개설을 위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날 3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K-방위산업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방위산업 융합전공’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그동안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이날 협약으로 보다 구체화된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방위산업 융합전공 학부 개설 및 운영 협력,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관련 과목 개설 추진을 통한 인재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세미나,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주기적인 정보 교류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K-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전북대에 방위사업청과의 협약은 국가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대학-산업체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반려동물산업학과, 전북대 수의과대학·동물의료센터와 협약 체결

인재 양성 위한 공동 연구, 기자재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학술 지원 등 상호협력 강화

전주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는 지난날 29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동물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수의과대학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전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상열 학장과 김범석 부학장, 동물의료센터의 신기욱 센터장 그리고 전주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이승욱 학과장, 객이구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연구 △기자재 활용 및 시설 이용 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 지원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상열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이승욱 학과장은 “양 기관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반려동물산업학과를 신설,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8.63:1(학생부종합전형)을 기록했다. /장은성 기자

민원인에 독서·휴식공간 제공

전북교육청, 고객지원실에 민원책방 조성...국민의견조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객지원실에 독서 및 휴식공간인 민원책방(전BOOK쉼터)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제안된 민원 대기 중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 비치 요구'를 수용해 이뤄졌다.

특히 도서 목록과 공간 이름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모했다.

지난날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책방(전BOOK쉼터)은 모든 연령대가 읽을 수 있는 380여 권의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서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을 비치해 교육 공동체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홍공숙 총무과장은 “고객지원실에 조성된 민원책방(전BOOK쉼터)을 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과 맞춤형 취업캠프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지난날 30일 취업을 앞둔 4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학과 맞춤형 취업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지역혁신관 호텔비즈니스아카데미룸에서 열린 ‘학과 맞춤형 취업캠프’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캠프와 입사지원서캠프, 면접캠프 등 3개 캠프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신의 취업 전략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취업캠프’는 주로 기업과 산업별 채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취업 준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사지원서캠프’는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을 배우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완성하도록 지도했다. ‘면접캠프’는 면접 유형별 특성과 사전 준비 및 모의면접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실전 면접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호텔그룹 ‘소피텔 엠베서더 잡실’의 정지원 인사 차장과 인사담당자가 취업캠프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재성 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번 취업캠프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받아보니, 그동안 어떤 점들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황인수 학과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으로 이번 취업캠프를 마련했다”며 “호텔산업의 동향과 채용 트렌드 변화를 소개하고, 입사지원서 작성이나 모의면접과 피드백을 제공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지역기반ICT경영 커풀링사업단은 지난날 30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 경영대학, 경진원과 산학협력 협약

윤여봉 경진원장 강연도 진행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지역기반 ICT경영 커풀링사업단은 지난날 30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여봉 원장과 전주대 김효진 경영대학장 및 지역기반ICT경영 커풀링 사업 참여교수와 참여기업 및 경영대학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경영대학 및 커풀링사업단 참여 학생 대상 전문가 특강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협약식에 앞서 윤여봉 원장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화를 선도하라’는 주제로 그간의 경험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강연을 펼쳤다.

윤 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미래 동력으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김효진 경영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산업과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직무역량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학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매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대, 미래교사

한복문화체험 프로그램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날 2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통 한복 영상·화보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촬영에는 본교 재학생 33명이 참여해 한복 입기, 예절 익히기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학생들은 한복 모델이 돼 곤룡포를 비롯해 철리, 학상의, 원삼, 장옷, 쓰개치마, 당의 등 궁중의상과 반가의의상을 멋지게 선보였다.

31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예비 교원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전통문화 콘텐츠인 한복으로 우리 한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고, 전통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과정을 마련했다.

김도훈 학생(실과교육과 3년)은 “초등 미래교사로서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멋지게 계승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최경은 교수는 “재학생들이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초등학교 한복문화체험 교육실습을 시작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한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 한복 화보 촬영 영상은 대학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날 30일 전주·군산부설초등학교와의 화합을 위한 ‘교육가족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교대, ‘교육가족 워크숍’ 성료

전주·군산부설초와 화합 도모... 체육행사로 진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날 30일 전주·군산부설초등학교와의 화합을 위한 ‘교육가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군산부설초 팔마누리관에서 체육행사로 진행, 박병춘 총장을 비롯한 양 부설초 교장, 대학교 보직자,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3개교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피구, 신궁(신발던지기), 배구 3개 종목 리그전을 통해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학교별 열린 응원을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피구는 전주교대, 신궁은 전주부설초, 배구는 전주부설초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부설초가 3개 종목 종합 우승했다.

박병춘 총장은 “모두가 승자가 되는 체육대회가 돼 기쁘다”면서 “행사를 준비한 군산부설초에 감사드리며, 교육가족 모두가 웃고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든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